

# “불교 안에 기업 경영의 묘(妙)가 숨신다”

### 3월 14일 불교인적자원관리 연구 학술세미나 ‘눈길’

2600년 전 인도에서 이자수입을 유일한 계 인정한 불교는 사회경제사상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모습에서 오늘날 기업경영의 모델을 찾기 위한 학문의 장이 열렸다.

동국대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 연구 팀은 3월 14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불교를 통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인간 본성의 윤리적 자각 일깨워야

박경준 동국대 교수(연구팀 책임연구원)는 기초발제에서 “인간은 인적자원관리의 대상이면서 본성을 지닌 존재”라며 “부처님은 인간을 육신과 정신이 결합된 인식론적 구조인 오온으로 논의하고 이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행위가 인생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출발점으로 이어진다. 즉 개인과 사회의 구성에서 평등론의 인간관이 나오게 된다”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부처님 시대 사회적 구호사업과 경제활동을 장자계승의 예를 들었다. 박 교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업보사상과 보시를 강조한 복전사상을 표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자들의 경제활동에 높은 윤리적 자각을 일깨웠다”며 “이들은 공공의 복지 증진을 통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다 높였다. 자신의 이익추구에 이익과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모

#### 박경준 “노동자는 평등한 존재”

김승용 “연기적 사고, 이직 막는다”

이동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

조기룡 “노사갈등시 화쟁 사상 적용”

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먼저 인간본성에 대한 시각검토를 통해 기업형성의 철학 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며 “평등한 인간관 하에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화와 공존의 기업윤리가 새로 자리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연기적 사고가 직무만족 이끌어 내

먼저 김승용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교적 세계관의 사회과학적 적용’에서 개개인의 연기적 성향이 조직적응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의 설문은 5개월 간 기업체와 학교, 교육시설 등에서 총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연기적 성향이 인적자원관리의 주요변인들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연기적 성향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지님을 볼 수 있었다”며 “특히 비연기적 성향은 직무만족과는 부의관계(반대)를, 이직의도와는 정의관계를 보이는 반면 조직몰입과는 상관성



박경준



김승용



조기룡

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반현상을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연기적 관계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연기적 행동이 직무만족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연기적 성향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기업경영에 있어 인적자원을 관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를 개발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불교 내 공동체 정신, 기업운영에 도움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기업의 노사갈등에서 화쟁사상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 교수는 “기업 등 조직구성원 모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부분적 타당성을 수용해야 하며, 이는 구성원 모두가 평등무차별인 공동체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동체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갈등이 이어질

때 중도적 중재자가 양극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재자는 정론 쌍방을 모두 이해해 양자들의 화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불교의 사회 윤리적 해석’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한 불교적 공동체주의 기업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발전 속에 고용 유연성이 강조돼 비정규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소속감과 주체적 인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 내의 차별없는 투자가 인간사의 문제 해소 등에 도움을 주며 이는 근로자들의 직무몰입으로 이어진다. 즉 그동안 경제적 분석에 치중해온 인적자원관리에서 평등과 공동체주의의 인사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혜문 스님, 문화재 환수 국제 청원 추진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사진)은 3월 5일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왕실 유물과 경주 금관총 유물 등의 환수를 위해 프랑스 국제박물관협회(ICCOM)에 국제청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유물은 오구려 컬렉션으로 2월 도

쿄박물관을 상대로 도쿄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혜문 스님은 “도굴품이란 것이 입증된 만큼 협의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광복절 전 한국에서 유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고려대장경 ‘제종교장’ 학술보고회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법)는 4월 4일 오후 1시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고려 ‘제종교장 조사 학술보고회’를 개최한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신편제종교장 총록>과 법화 천태 장소’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보고회에서는 △남권희 경북대 교수의 ‘법화·천태 장소(章疏) 간행과 유통’ △김성수 청주대 교수의 ‘신편제종교장 총록’의 천태법화 장소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대한 연구’ △박용진 박사의 ‘고려시대 천태종 소의장소와 <신편제종교장총록>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대각국



천태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조사 모습

사 의천과 유식 장소에 관한 일고’ △서대원 충북대 교수의 ‘삼체는 이체와 상유하는가?’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02)926-8144 노덕현 기자

## 화엄사상과 현대불교예술의 만남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조수동·이진오)는 3월 28일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화엄사상과 불교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진오 부산대 교수의 ‘연기의 상상력과 관계미학’ △김현희 부산대 교수의 ‘현대예술과 무예의 아름다움’ △도업 스님의 ‘화엄경(여래출현

품)에 담긴 수사법과 현대문학성’ △윤소희 부산대 교수의 ‘화엄자모와 21세기 불교음악’ △이찬훈 인제대 교수의 ‘불교예술에서 (화엄경)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불교 중에서도 화엄사상이 현대 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문의 향연을 열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사찰음식 수행식 근본 되찾아야”

### 3월 14일 한국사찰음식 방향 제시 학술포럼 열려

불교사찰음식의 방향을 정립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소장 정승석)는 3월 14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불교 음식학 정립을 위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재료이지만 그 속의 특성을 살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장)는 “요의중생의 식생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불교의 식문화는 절제로써 자연과 중생의 공존 및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구상에는 아직도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올바른 식문화를 통한 남는 자원을 이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서열화 오해 샀던 국보 ‘지정 번호제’ 손본다

### 문화재청 3월 10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

국보 1호는 ‘송례문’, 보물 1호는 ‘홍인지문’이지만 이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보다 가치 등에서 월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리번호’이지만 지정번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 번호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보 1, 2, 3호가 1, 2, 3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종종 터져나오는 ‘국보 1호 교체’와 같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3월 10일 ‘국가문화재 관리 체계 재조정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사업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계약했다. 연구원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까지 문화재 지정번호 전반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민 설문조사 및 해외 문화재 관리운영 제도를 점검한 보고서를 11월 경 펴낼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생겨난 일제시대 연원과

이후 전개 과정, 국민인식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 지정번호를 운영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국은 ‘진귀문물’, ‘일반문물’로만 분류하며 일본은 지정번호를 운영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관리에만 사용한다.

문화재 지정번호 논란은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혜문 스님 등의 활동에서 드러난다. 혜문 스님은 “일제 잔재로 1934년 조선총독부가 송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했고, 해방 후 이를 이어받아 국보가 됐기 때문에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개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인도철학회, ‘인도철학의 명상심리’ 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는 4월 3일 오전 10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안성두)와 공동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인도철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의 명상심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진건 동국대 박사의 ‘트리구나(Triguna)설의 심리학적 적용문제’ △박

기영 동국대 박사의 ‘낙(樂) 따위의 심리현상에 대한 불교인식론의 논증’ △김재권 능인대학교학원대 교수의 ‘유식학적 기반으로 본 명상심리 교철’ △백도수 능인대학교학원대 교수의 ‘불교대지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의 ‘간화선과 심리치료’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3 노덕현 기자

##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투고논문 모집

한국정토학회(회장장 신규택)는 4월 30일 까지 <정토학연구> 23집에 실릴 기고 논문을 모집한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5~18매로 한글2002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거

10개와 영문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분량 및 투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토학회(www.jungtohak.or.kr) 논문투고정정을 참고하면 된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로,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대도로 두뇌와 마음을 열어 우주만법을 담아 건성도통 천지공사로 귀신잡는 마장 살생 명부를 천부에 올려 건성도통 령과 혼 영육으로 도인되는 음미년 유불선도통 천인통 입문 대법회

대도는 진법과 스승없이 세울 수 없는 하늘땅 사람에게 감춰진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금강진법사구계인 수, 육, 보, 영, 진중도, 민족업, 봉천영, 비법은 말과 글, 문자와 참선수행자 종교를 초월 역대선지식님들도 풀지 못 한 진법인 도, 고, 마성인 귀신 장난에 수행자나 스님 및 도인들도 철퇴맞아 병에걸려 수행자의 문전만 남기고 갈길을 가지 못하는 귀신장난인 령과 혼 그리고 영육이 하나로 되는 경신일 자오시에 빛으로 자신을 구하고 병겁을 넘어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종교를 초월하여 도통하는 정법안장 마음에 문을 여는 유불선 자오시에 천지개벽은 밖에서 오는것이 아니고 내안에 삼신과 오장육부의 대지진으로 자신을 이겨야 자성의 빛을 보는 천지인신 개벽으로 도인, 신선, 선녀가 되는 의통 능력의 초 신통력을 얻는 천하제일의 도법인 불생불멸하는 무량광자로 일류스승 되소서...?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만유를 제도하고 마음의 두뇌를 지배하는 법으로 지구촌 가장 빠른 수행자, 스님, 성직자, 도인들의 성불 도통하는 법은 하늘, 땅, 사람, 자연, 귀신, 바다와 자연이 하나로 되는 날이 육십갑자 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입문하여 도통하는 것이다.

입 제 일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 (필기도구 준비)

해 제 일 :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무박 2일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박한영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의 3층 용천사 (부평재래시장입구)

**유불선 천지공사 불선도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종정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한성 무상사 태일대종사